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모색

김 양 중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kyj0509@cni.re.kr

KTX 공주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조사를 통해, 이용객 특성과 성향에 따라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CONTENTS

1. KTX 공주역 활성화의 필요성
2. KTX 공주역 이용객 설문분석의 특성
3. KTX 공주역 활성화 방안

요 약

- ◀ KTX 공주역은 공주시를 비롯, 인접 5개 시군의 균형적인 철도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지만, 이용률은 만족스럽지 못함
- ◀ 따라서 본 리포트를 통해 공주역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공주역 하차자 설문조사 결과 KTX 공주역의 이용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 공주시 이외 지역(시군)으로의 접근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이용객이 불편함을 제기
 - 공주역 하차시 시내버스 이용률이 낮고, 특히 주중 저녁시간대는 자가용 이용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배차 및 노선확대가 필요
 - 특히 대중교통확대의 경우는 주변시군 도로망의 확대와 연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자체간 연계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 주말의 경우 관광목적의 방문이 크게 증가하여, 관광역으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주중 관광 이용률은 저조한 편
 - 향후 가족여행 비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저조한 평일 관광을 위해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숙박비 할인 등 시책 발굴 필요
- ◀ 교통수단 불편 이외에도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의 부족과 음식점의 부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남
 - 특히 역주변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역내시설도 중요하지만 역외시설 확충 또한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함
- ◀ 또한 장기적인 통근자를 위한 회사원 출장유인책 발굴 등 틈새시장(승객) 공략도 필요
 -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주역 홍보 전략 필요

01

KTX 공주역 활성화의 필요성

- ‘KTX 공주역’은 공주시를 비롯하여,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등 인접 5개 시군의 균형적인 철도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음

[그림 1] KTX 공주역 전경



출처: 흥미진진 공주 공식블로그

- 공주시는 ‘KTX 공주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용률은 기대보다 저조
 - 호남고속철 ‘KTX 공주역’은 지날 4월 개통 4주년을 맞이하였고, 문화행사 및 나눔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활성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KTX 공주역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등은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음

02

KTX 공주역 이용객 설문분석의 특성

1. 설문조사의 개요

- 2019년 4월 20일(토)부터 4월 26일(금)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
- 표본수는 하차자 339명으로 설문지에 의한 1:1 면접조사로 시행
- 설문조사기간 공주 KTX역 하차자는 총 339명을 조사하였음

〈표 1〉 성별 하차자

(단위: %, 명)

성별	주말	평일	합계
남성	37.6	59.3	49.3
여성	62.4	40.7	50.7
명	157	182	339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평일로 구분하였음

- (성별) 여성의 이용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의 경우 여성이 비중(62.4%)이 남성(37.6%)보다 24.8%p높게 나타났음

〈표 2〉 연령별 하차자

(단위: %)

연령별	주말	평일	합계
10대	3.2	0.0	1.5
20대	22.9	17.0	19.8
30대	14.7	12.6	13.6
40대	19.1	15.9	17.4
50대	26.1	21.4	23.6
60대	8.9	19.2	14.5
70대이상	5.1	13.7	9.7

- (연령별) 50대의 비중이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19.8%), 40대(17.4%)순으로 나타남
 - 50대 하차자 비중이 높지만 20대의 방문도 늘고 있음(2018년 16.4% → 2019년 19.8%)

〈표 3〉 거주지별 하차자

(단위: %)

거주지별	주말	평일	합계
공주시	19.9	24.3	22.2
서울특별시	22.4	27.1	24.9
인천광역시	3.2	2.8	3.0
경기도	11.5	5.1	8.1
강원도	0.6	0.6	0.6
충청남도	13.5	13.0	13.2
충청북도	1.3	0.6	0.9
대전광역시	3.2	2.3	2.7
세종특별자치시	3.2	4.0	3.6
부산광역시	0.0	1.1	0.6
경상남도	0.6	0.0	0.3
광주광역시	3.9	4.5	4.2
전라남도	9.6	8.5	9.0
전라북도	7.1	6.2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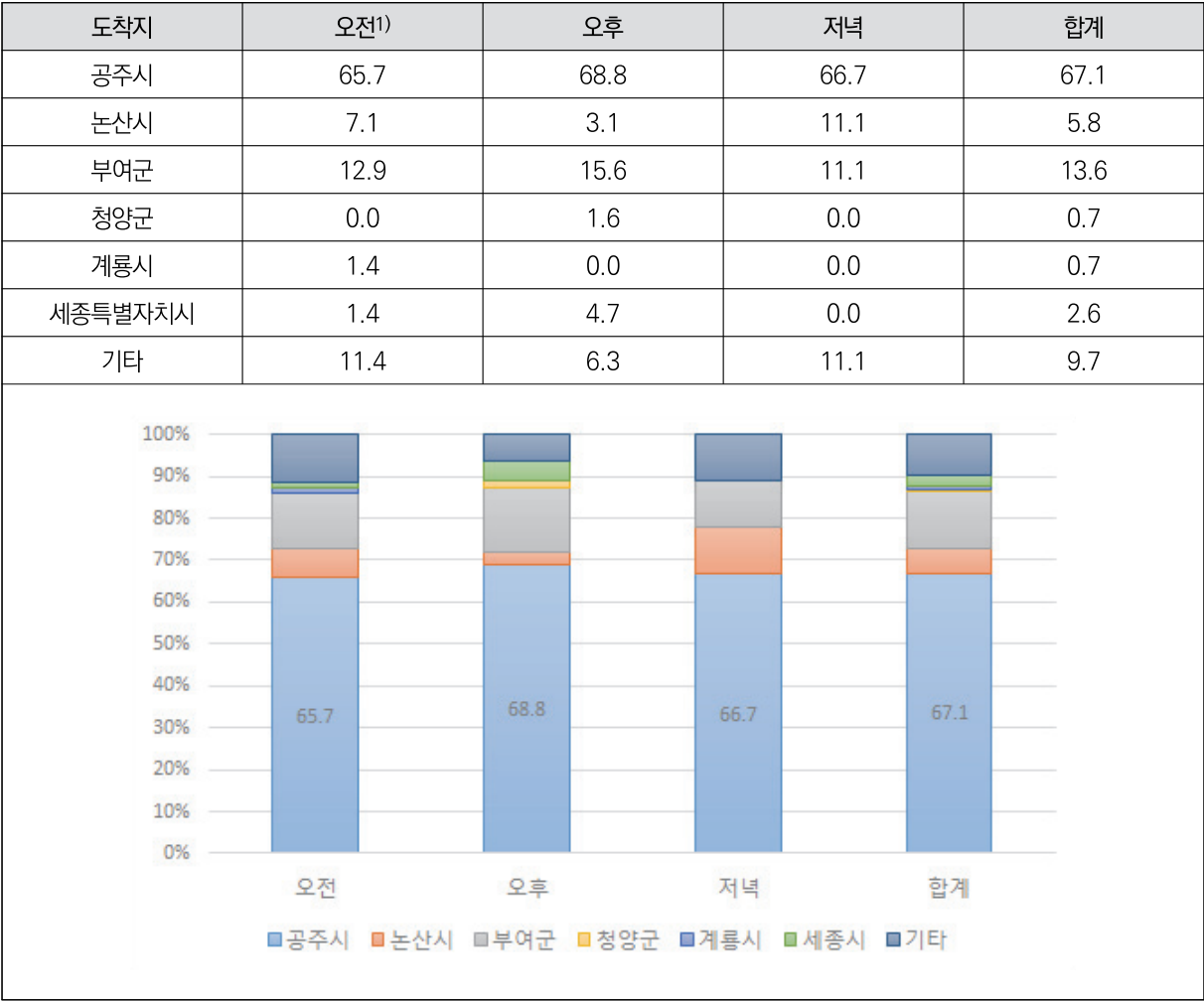
- (거주지별) 서울특별시 거주자의 비율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주시 (22.2%), 충남(13.2%)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특별시시 거주 하차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2018년 11.4%→2019년 24.9%)

2. KTX 공주역 하차자 특성

1) 주말 하차자

〈표 4〉 주말 하차자 최종 도착지

(단위: %)



1) 오전은 06~13시, 오후는 13~19시 저녁은 19~24시로 구분하였음

- (최종도착지) 전체적으로 최종도착지는 공주시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부여군이 다음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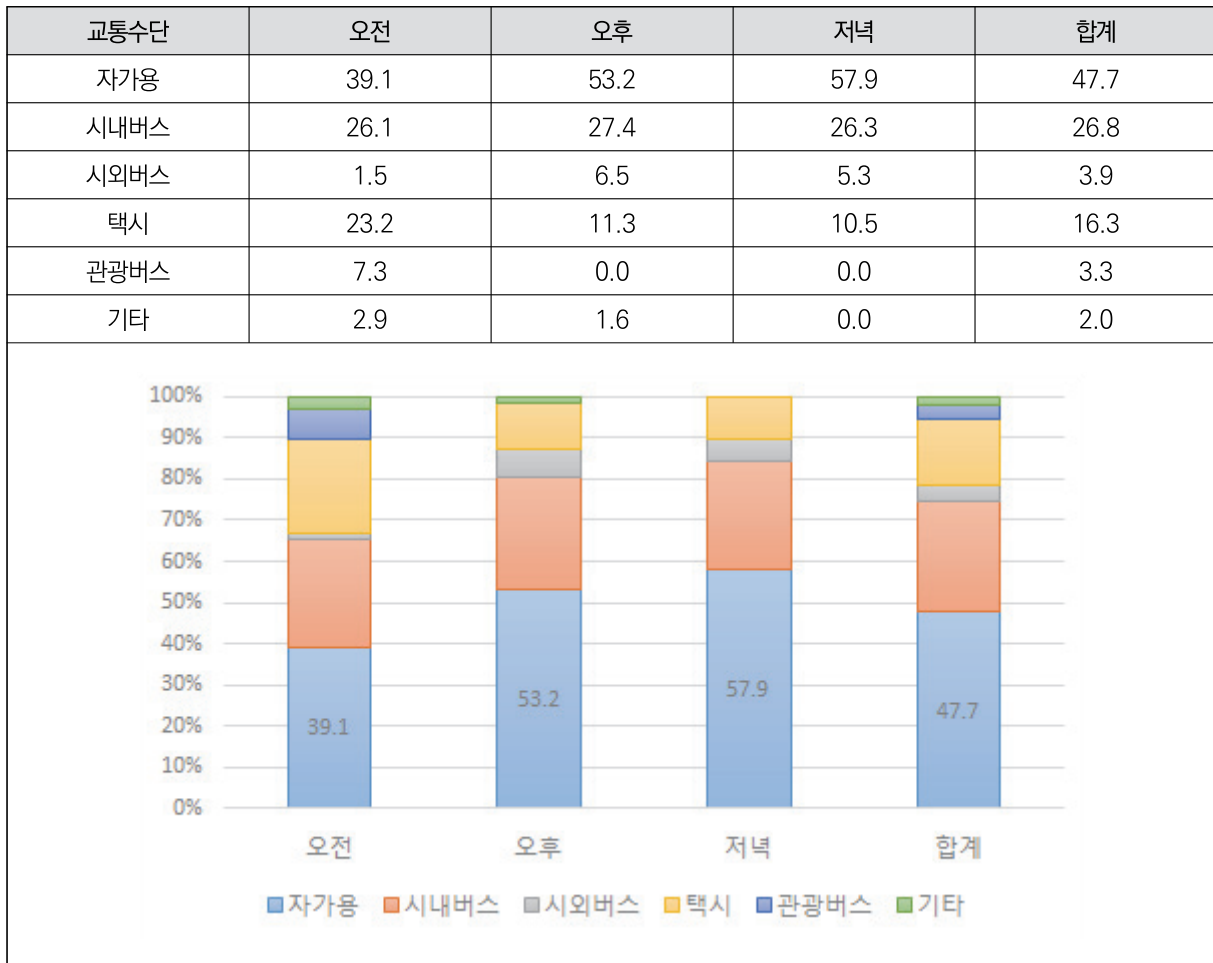
- 오전 하차자의 최종도착지는 공주시가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후와 저녁도 공주시가 각각 68.8.2%,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아직까지 하차자 대부분의 도착지가 공주시로 나타나, 공주시 이외 지역으로의 접근성은 불편한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2018년도에 비해 공주시의 이용비중은 다소 감소하였고, 부여군과 논산시의 비중이 증가(공주 76.1%→67.1%, 부여 5.0%→13.6%, 논산 3.5%→5.8%)하여 타지역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음

〈표 5〉 주말 하차자 이동시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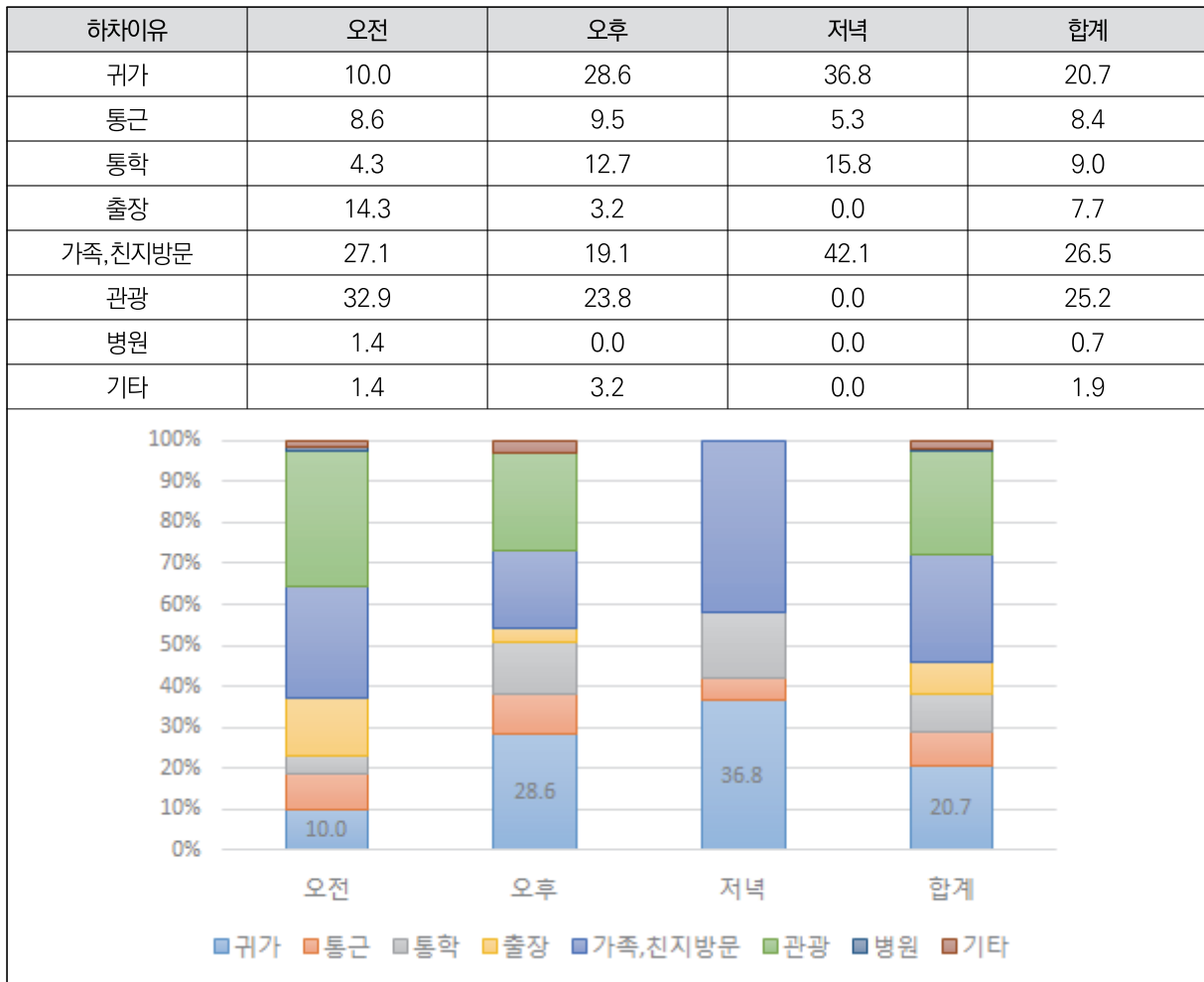
(단위: %)



- (이동시 교통수단) 이동시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내버스(26.8%), 택시(16.3%) 순이었음
 - 저녁시간은 자가용 이용비중이 높았고, 오전에는 택시의 이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 여전히 시내버스보다 자가용 이용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 및 노선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2018년에 비해 택시의 이용 비중이 높아진 것은 특이점(6.9%→16.3%)

〈표 6〉 주말 하차 이유

(단위: %)



- (하차이유) 하차이유는 가족, 친지방문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광 (25.2%), 귀가 (20.7%)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오전에는 관광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 주말의 경우 관광목적의 방문이 크게 증가하여(13.7%→25.2%) 관광역으로의 기능이 보강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표 7〉 주말 하차시 초등학교 이하 자녀 동반여부

(단위: %)

	오전	오후	저녁	합계
예	7.5	18.0	26.3	14.0
아니오	92.5	82.0	73.7	86.0

- (자녀 동반여부) 주말하차 시 14.0%가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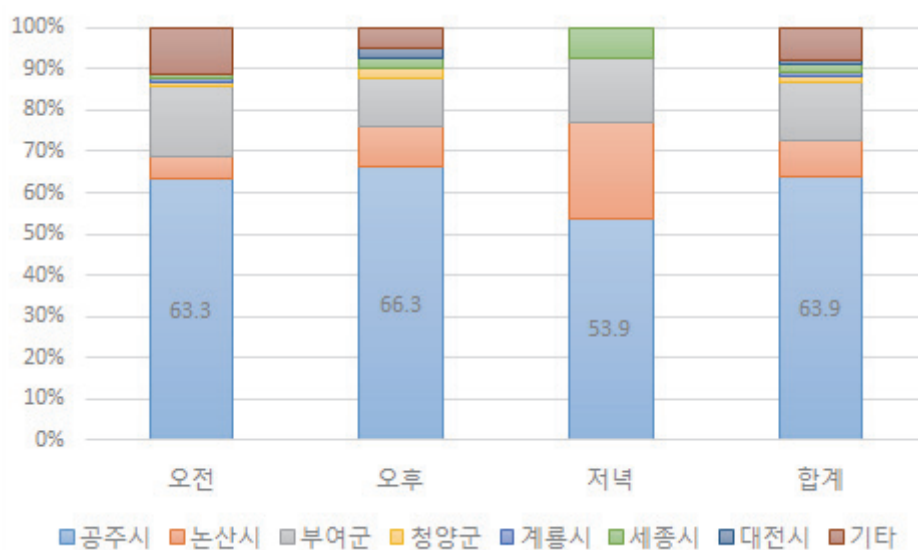
⇒ 주말 하차시 아이 동반 비중이 14.0%로 아직 높지는 않지만 관광역으로 기능이 확대되면, 가족여행 비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중 하차자

〈표 8〉 주중 하차자 최종 도착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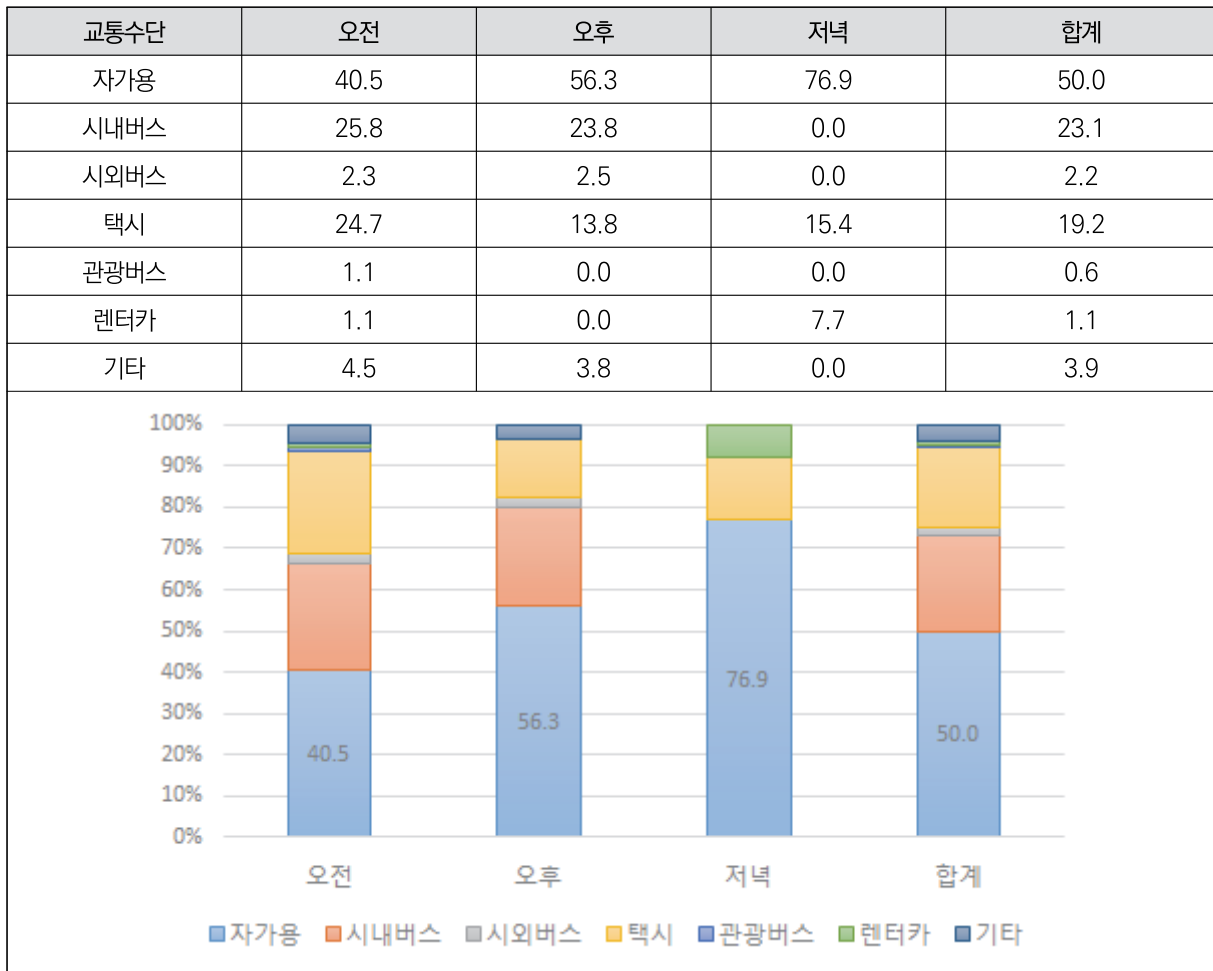
도착지	오전	오후	저녁	합계
공주시	63.3	66.3	53.9	63.9
논산시	5.6	10.0	23.1	8.7
부여군	16.7	11.3	15.4	14.2
청양군	1.1	2.5	0.0	1.6
계룡시	1.1	0.0	0.0	0.6
세종시	1.1	2.5	7.7	2.2
대전시	0.0	2.5	0.0	1.1
기타	11.1	5.0	0.0	7.7



- (최종도착지) 전체적으로 최종도착지는 공주시가 가장 높았고, 부여, 논산 순으로 나타남
 - 오전 하차자의 최종도착지는 공주시가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오후와 저녁도 공주시가 각각 66.3%,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2018년도에 비해 공주시 비중이 줄고(72.9%→63.9%) 부여군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지만(9.4%→14.2%), 여전히 공주시 비중이 높아 공주 외 지역으로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

〈표 9〉 주중 하차자 이동시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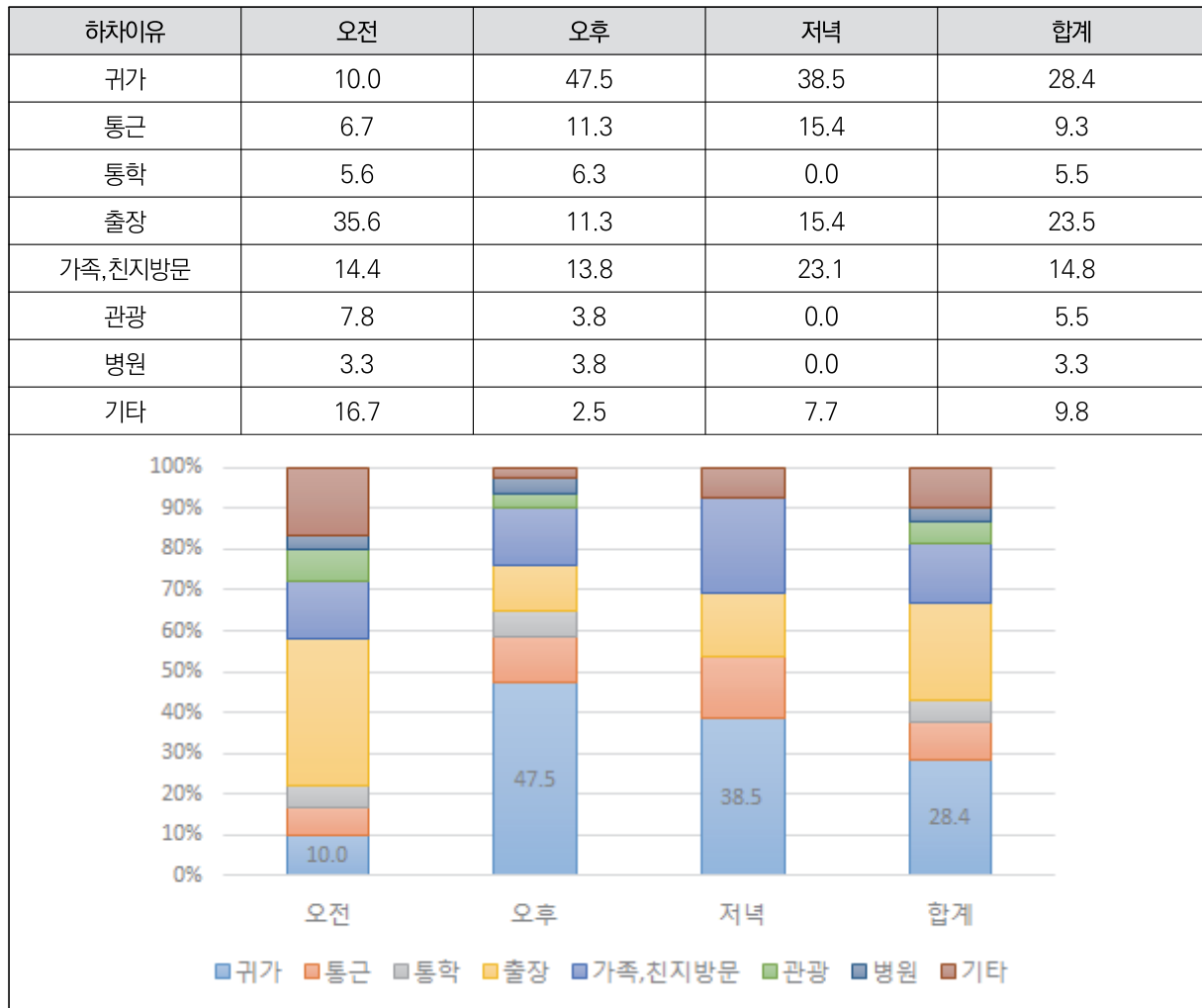
(단위: %)



- (이동시 교통수단) 이동시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내버스 (23.1%), 택시(19.2%) 순이었음
 - 특히 주중 저녁시간대의 경우 시내버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주중의 경우 저녁시간 대 시내버스보다 자가용 이용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 및 노선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표 10〉 주중 하차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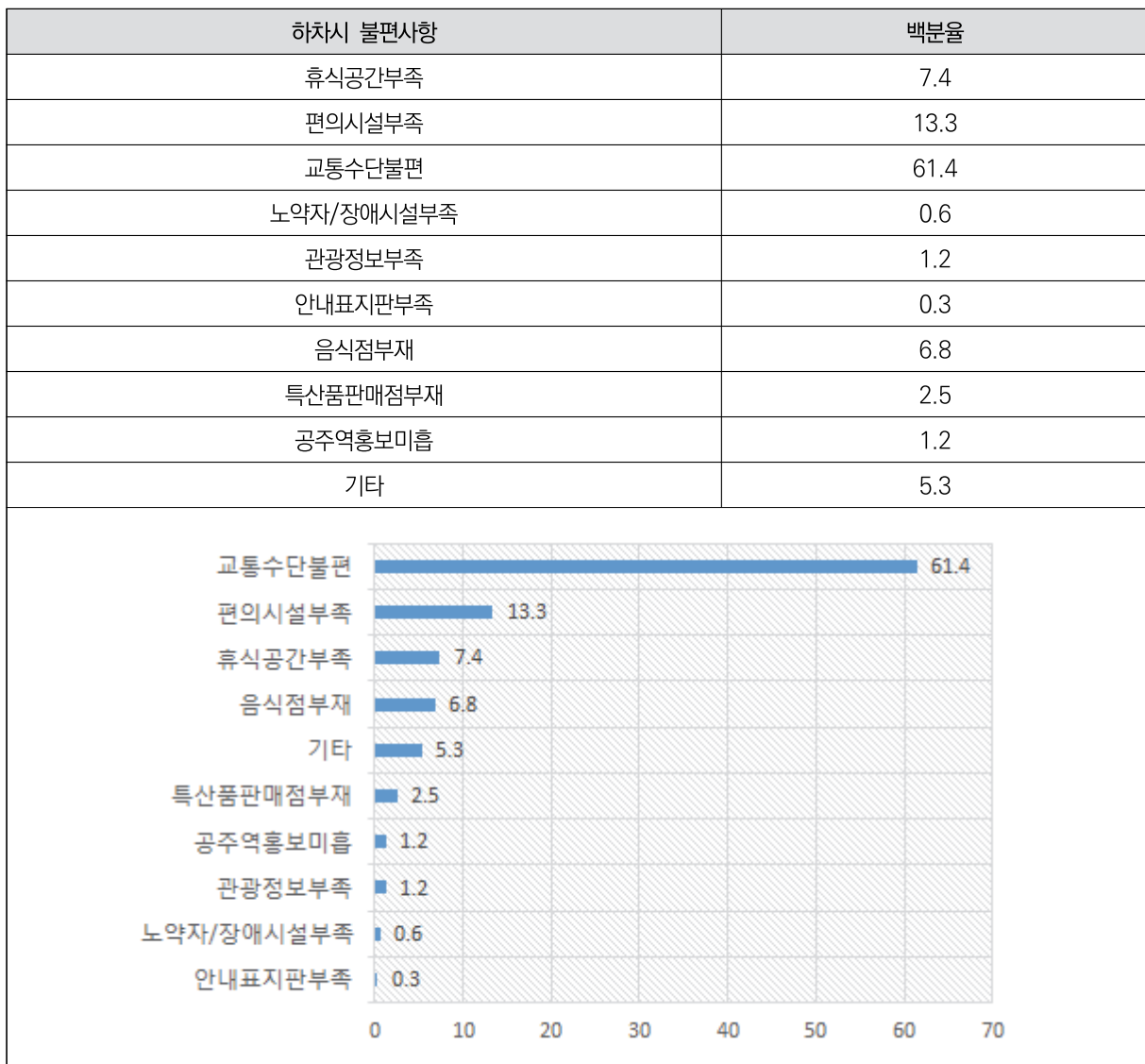
- (하차이유) 하차이유는 귀가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장이 23.5%, 가족, 친지방문이 14.8%로 다음 순이었음
 - 주말관광 비중은 2018년도 보다 증가하였지만 주중 관광은 감소(14.6%→5.5%)
 - ⇒ 주중의 경우 귀가와 출장의 비중이 높았고, 관광목적의 방문은 매우 낮게 나타나 평일 관광을 위한 시책 발굴 필요(입장료, 숙박비 할인 등)

3. KTX 공주역 하차시 불편 및 불만족 사항

- (하차시 불편사항) 하차시 불편 및 불만 사항 1순위로는 교통수단 불편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의시설 부족(13.3%), 휴식공간 부족(7.4%)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편의시설 부족은 감소(25.2%→13.3%)하였으나 음식점 부재의 비중은 증가(2.8%→6.8%)

〈표 11〉 하차시 불편 및 불만족 사항 1순위

(단위: %)



- (하차시 불편사항) 하차시 불편 및 불만 사항 2순위로는 음식점 부재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휴식공간부족이 다음 순이었음

〈표 12〉 하차시 불편 및 불만족 사항 2순위

(단위: %)



⇒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으로의 교통수단 확대 및 배차시간 조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여겨지며, 편의 및 휴식공간의 확충과 공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음식점 확대도 필요

03

KTX 공주역 활성화 방향

1.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

-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2018년, 2019년 조사에서 대중교통 확대로 나타났다으며, 역내 음식점, 편의시설, 휴게시설 확대, 기차 운행시간 확대 및 조정이 다음 순이었음

〈표 13〉 공주역 활성화 방안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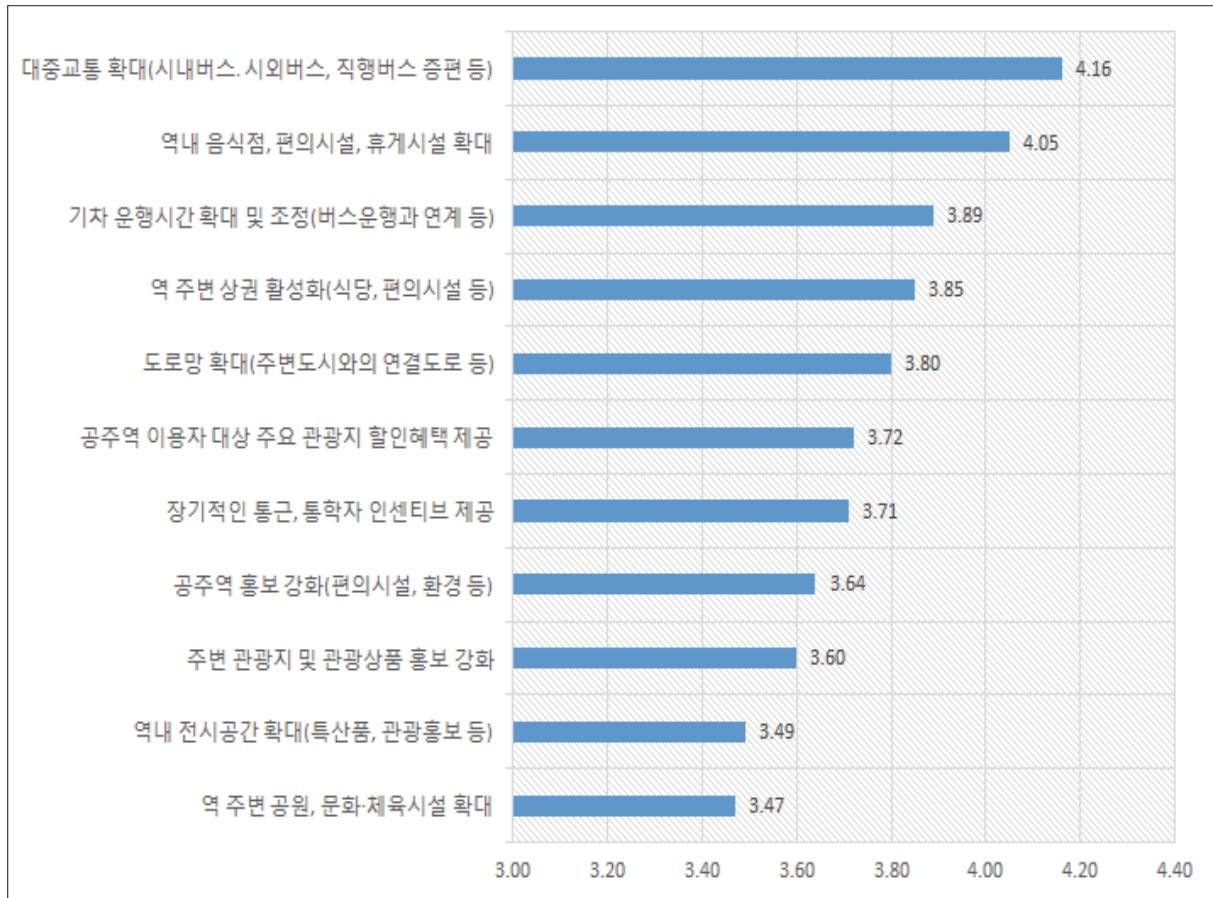
(단위: 5점 척도 평균)

변수	2018	2019
도로망 확대(주변도시와의 연결도로 등)	4.15	3.80
대중교통 확대(시내버스, 시외버스, 직행버스 증편 등)	4.19	4.16
기차 운행시간 확대 및 조정(버스운행과 연계 등)	4.09	3.89
역 주변 상권 활성화(식당, 편의시설 등)	4.03	3.85
역 주변 공원, 문화·체육시설 확대	3.89	3.47
주변 관광지 및 관광상품 홍보 강화	3.90	3.60
공주역 홍보 강화(편의시설, 환경 등)	3.96	3.64
공주역 이용자 대상 주요 관광지 할인혜택 제공	3.96	3.72
장기적인 통근, 통학자 인센티브 제공	4.01	3.71
역내 전시공간 확대(특산물, 관광홍보 등)	3.82	3.49
역내 음식점, 편의시설, 휴게시설 확대	4.03	4.05

- 또한 역 주변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역내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역외 시설 또한 함께 뒷받침 되어야 KTX 공주역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그림 2] 공주역 활성화 방안 중요도 순위(2019년)

(단위: 5점 척도 평균)



- 특히 대중교통확대의 경우는 주변도시와의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확대와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연계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정책제언

- 공주시 이외 지역(시군)으로의 접근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이용객이 불편함을 제기했음
 - 공주역 하차시 시내버스 이용률이 낮고, 특히 주중 저녁시간대는 자가용 이용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배차 및 노선확대가 필요함
 - 특히 대중교통확대의 경우는 주변도시와의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확대와 연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자체간 연계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주말의 경우 관광목적의 방문이 크게 증가하여, 관광역으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주중 관광 이용률은 저조한 편임
 - 향후 가족여행 비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저조한 평일 관광을 위한 시책 발굴도 필요함(입장료, 숙박비 할인 등)
- 교통수단 불편 이외에도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의 부족과 음식점의 부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남
 - 특히 역주변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역내시설도 중요하지만 역외시설 또한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함
- 또한 장기적인 통근자를 위한 회사원 출장유인책 발굴 등 틈새시장(승객)공략도 이루어져야 함
 -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전략도 필요함

김 양 중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041-840-1163, kyj0509@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현안과제(2019년) 'KTX 공주역 이용객 모니터링 조사'를 요약해 재정리한 것임